

“휴가객 절반 이달말에 집중”

7.23~8.10 특별교통대책 기간...작년보다 통행량 4.8% 증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19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대책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올 여름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일평균 417만명, 총 7,928만명 이동하여 작년대비 4.8% 증가, 평시대비 28.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7,330만대(일평균 386만대)로 작년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동안 올 여름휴가객의 약 74%가 몰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는 30일 부터 8월 5일까지는 절반에 가까운 47.4%의 이동수요가 집중되어 평시에 비해 약 47.9%정도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30일은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으로, 8월 1일에는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차량으로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휴가지지역으로는 동해안(22.3%)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남해안권(13.0%), 강원내륙권(12.4%), 서해안권(9.5%)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전년에 비해 남해안권과 제주권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와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송능력을 일부 증강하여, 국민들이 안

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원활한 대중교통 수송을 위해 1일 평균 철도 102량, 고속버스 154회, 항공기 22편, 선박 269회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국도 영동선(문막-강천, 신갈-호법), 남해선(진주-마산) 등 3개 구간의 72.2km를 조기(임시) 개통하여 교통량 분산하고, 국도 5호선(부산-장양), 3호선(장암-자곡) 등 21개 구간의 77.5km를 조기(임시) 개통하여 지·정체구간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대 혼잡예상구간인 경부선 서울TG~안성 등 39개 구간

424.5km를 지정체 예상구간으로 선정하여 국도 우회유도, 갓길 활용 등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국도 47호선 구리-남양주 등 24개 구간(544.4km)을 교통정체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안내표지판(208개) 설치 등을 통해 우회도로로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발전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교통방송, 트위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통해 예상혼잡일자와 시간대,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등을 미리 확인한 뒤 출발하고, 이동 중에는 자동 음성전화(ARS, 1333), 콜센터(1588-2504), 교통방송, 도로변 전광판(VMS)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문화부, 여름철 국내 휴가 활성화로 내수 진작 꾀해

각 부처 장관 등 국내 휴가 여행에 앞장서

지역과 서민 경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가 국내 휴가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6월 문화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정갑영)이 조사한 '국민들의 여름철 휴가여행 계획'에 따르면 응답자 64.3%는 올 여름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며 이중 81.5%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 10명 중 5명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활용해 올

해 여름휴가 여행 총 지출액을 추정 한 결과, 올해는 총 3조 6,111억 원의 관광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조 1,576억 원, 고용유발효과 43,694명 규모로 추정되어 국내에서의 휴가 활성화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내수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부는 적극적으로 여름철 국내 휴가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국립공원

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코레일(KORAIL) 등 유관기관의 휴가철 활용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동으로 국내 휴가여행을 통한 365일 행복 충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여름철 휴가 집중사용에 따른 바가지요금 등 혼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도, 부산, 여수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 접점 종사자와 함께 '진절, 청결, 질서, 신용' 정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6월 땅값 0.10% 상승, 거래량 13.2% 증가

국토해양부는 6월 전국 지가는 전월 대비 0.10%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전 고점인 2008년 10월에 비해서는 1.63% 낮은 수준이다.

토지거래량은 총 207,499필지, 197,540천㎡로서 전년동월과 비교해 필지수 기준 13.2% 증가, 면적 기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동월 평균 거래량(209천필지) 대비 0.8% 낮은 수

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0.07%, 인천 0.06%, 경기 0.14%이며, 지방은 0.04~0.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시흥시 등이 전국 평균 증가율을(0.10%)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녹지지역(0.16%),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0.13%)이 소폭 상승했으며, 지목별로는 전(0.16%), 답(0.13%)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토지거래량은 총 207,499필지, 197,540천㎡로서 전년동월과 비교해 ① 필지수 13.2% 증가, ② 면적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동월(2010.6월) 대비 13.2% 증가한 수준의 토지거래량을 나타냈으며, 최근 5년간 동월 평균 거래량(209천필지)보다 0.8% 낮은 수준이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20.4%), 개발제한구역(19.4%), 주거지역(17.2%)의 거래량이 증가했고, 이용상황(지목)별로는 대지(17.9%), 임야(16.1%)의 거래량이 증가했다.

환경부 · 한국공항공사 · 그린스타트 공동 캠페인 추진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지난 22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3층 출발대합실에서 환경부 및 그린스타트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녹색여행 만들기 Me First!」 캠페인을 벌인 뒤 8월 21일까지 전개한다.

「녹색여행 만들기 Me First!」 캠페인은 휴가철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녹색여행을 위한 손수건 나눠주기,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서약, 기후변화대응 성금 모금 등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단순한 캠페인 활동을 탈피하여, 여행객의 흥미유발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형 지구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실천서약과 함께 여행지에서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손수건 나눠주기 행사도 함께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구 모형에 모인 기후변화 대응 성금은 '새 생명 나무 보급사업' 및 '기후변화 교육 컨텐트 보급'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We Love K-POP〉 100여명의 미국 K-POP 팬들이 한국관광공사를 방문, 관광공사 이 참 사장과 함께 T2 마당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은 MBC[쇼! 음악중심]을 방청하고 소녀시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됐으며, KBS[불후의 명곡]을 방청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디(D)-80

‘역사 여행’과 ‘전통 문화 여행’, ‘녹색 체험 여행’을 통해 도시 주목받고 있는 천년 고도 경주가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를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 전문가가 인정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대표적 국제 관광 명소 거점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10월 8일 ~ 14일까지 7일간, 경주)에 참석하는 세계 154개국 관광 장관과

대표단, 관광 관련 기구, 학계·업계 등 1,000여 명에게 총회 기간 중 테크니컬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총회 개최지인 대한민국 경주를 지속가능한 관광의 세계적 모델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2000년대 후반부터 경주의 주요 여행 테마였던 ‘역사 여행’, ‘전통 문화 여행’과는 별도로 ‘녹색 체험 여행’이라는 테마를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속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천년의 역사에 직접 빠져드는 체험을 안겨주는 ‘도보·자전거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주시는 총회 기간 중인 10월 9일과 14일 양일간, 총회에 참석하는 해외 관광 전문가들이 경주 양동마을과 기타 경주의 대표적 관광지를 방문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코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테크니컬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전기공급약관 개선 시행

‘더 편리한 전력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합니다.

- 전기소비자 보호 및 편익제공
 - 저압공급 범위를 499kW까지 확대하여 고객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권익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정전시 피해배상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고압고객에게 공급하던 예비전력을 고객 희망시 저압고객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전기사용신청(임차인 명시)시 고객이 희망하고, 신용이 우량한 경우 보증조치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 미래대응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
 -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의 전력시설 설치비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전기사용계약의 중요사항(용도, 계약전력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이 1개월 이내 변경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300kW이상 500kW미만 산업용전력 저압 고객은 산업용전력(갑) 저압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
 - 계절변경시 중간검침대상을 확대(1,000kW이상 → 원격검침 고압고객) 하였습니다.
 - 임시전력의 사용기간을 정해지지 않은 일정기간에서 2년 이내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전기요금 미납고객에 대한 연체료 요율을 타 공공기관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 오피스텔 계약종별 적용기준(업무시설 사용고객은 일반용전력, 주거로 사용고객은 주택용전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약전력 1kW미만 가로등(갑) 고객의 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전기상담 : 국번 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123) |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